

# 수업 현대시의 재구성

06-10번



## 메모 활용법

모의고사 실력 향상을 위해 평상시 문학과 독서를 분석하도록 하자.

### ■ 시

화자, 청자, 시적 대상, 상황, 정서, 태도를 찾는다. (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면 대신할 수 있는 시어를 찾는다 )

### ■ 소설, 극

인물 관계도, 사건, 배경, 서술 방식, 상징적 소재

### ■ 수필

인물, 사건, 배경, 깨달음

### ■ 독서

단락 정리 및 내용 전개 방식

## 미니 모의고사 푸는 방법

■ 1주일에 5일씩 풀도록 한다.

평일에는 1-5회 문제를 풀고, 토요일에는 틀린 문제 오답을 하도록 한다. 일요일에는 문법을 복습하자.

■ 문학과 독서 지문은 반드시 시간을 체크하여 시간을 관리하도록 한다.

■ 채점은 그날 바로 한다.

■ 모든 문제의 근거는 지문 속에 있다. 반드시 정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아 표시하도록 한다.

■ 틀린 문제는 해설을 바로 보지 말고 맞힐 때까지 다시 풀도록 한다. 정답을 찾았을 때는 해설지와 자신의 근거를 비교하며 확인한다.

■ 틀린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다음에 어떻게 풀어야 맞힐 수 있는지 고민하자. 잘못된 풀이법이 있다면 수정하자.

■ **학생들끼리 복사해서 공부하는 건 OK! 단, 수업용, 과외용으로는 무단 복사 및 배포 금지!**

# 미니 모의고사

수특 현대시 06-10번

총 소요 시간

맞은 개수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3년 3월

(가) 망향(望鄕)의 노래

신석정

한 이파리  
또 한 이파리  
시나브로 지는  
지치도록 흰 복사꽃을

꽃잎마다  
지는 꽃잎마다  
굽다랗게 자꾸만  
감기는 서러운 서러운 연륜(年輪)을

[A] 늙으신 아버지의  
기침소리랑  
곤매 가신 지 오랜 아내랑  
어리디어린 손주랑 사는 곳

버리고 온 '생활(生活)'이며  
나의 벅차던 청춘이  
아직도 되살아 있는  
㉠ 고향인 성만 싶어 밤을 새운다.

(나) 초혼(招魂)

김소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 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붉은 해는 서산 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앓은 ㉡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설움에 곱도록 부르노라.  
설움에 곱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 가지만  
㉢ 하늘과 ㉣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 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B]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다) 한(恨)

박재삼

감나무쫂 되랴,  
서러운 노을빛으로 익어가서  
내 마음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나무는!

이것이 제대로 변을 데는 ㉤ 저승밖에 없는 것 같고  
그것도 내 생각하던 사람의 등뒤로 번어가서  
그 사람의 머리 위에서나 마지막으로 휘드러질까본데,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안마당에 심고 싶던  
느껴온 열매가 될는지 몰라!  
새로 말하면 그 열매 빛깔이  
전생(前生)의 내 전(全)설움이요 전(全)소망인 것을  
알아대기는 알아 낼는지 몰라!  
아니, 그 사람도 이 세상을  
설움으로 살았던지 어쨌던지  
그것을 몰라, 그것을 몰라!

정리

1.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 (나)에는 자연 친화적인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② (가), (다)에는 자기 성찰과 반성이 드러나 있다.
  - ③ (나), (다)의 화자는 대상과의 거리를 인식하고 있다.
  - ④ (가), (나), (다) 모두 인생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⑤ (가), (나), (다) 모두 대조적인 이미지로 이별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2. (가)와 (다)에 나타난 중심 소재의 성격과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2점]

(가)의 '복사꽃'

- 떨어짐[落] : 소멸, 계절의 변화.
- 흰색 : 전통적으로 시에서 애상적 정조를 불러일으키는 색깔로 사용됨.
- 향토적인 소재.

(다)의 '감'

- 익음 : 열매, 오랜 세월의 축적.
- 노을빛 : '노을'의 붉은색이 주는 애상적 정조.
- 전통적인 소재.

- ① '복사꽃'이 떨어지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상기시키고 있다.
- ② '복사꽃'은 화자에게 고향을 연상시키는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 ③ '감'에는 내면의 성숙을 염원하는 화자의 마음이 담겨 있다.
- ④ '복사꽃'과 '감'은 모두 서러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⑤ '복사꽃'과 '감'은 모두 색채적 이미지로 시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3. ㉠ ~ ㉣ 중, ㉡과 함축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4. [A]를 <보기>처럼 바꾸어 썼다고 가정할 때, 고려했을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비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맡은기침 소리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짚 베개를 돌아 고이시는 초가집.  
 들꽃같이 수수한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나어린 손주가  
 송아지처럼 철없이 뛰놀던 들판.

- ①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율격을 살리고 있는 원시(原詩)의 의도는 유지하는 게 좋아.
- ② 가족의 모습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려 보는 발상을 그대로 살려야겠지?
- ③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대상의 이미지를 구체화할 수 있을 거야.
- ④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면 조금 더 실감 나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 ⑤ 고향의 속성을 드러내는 사물도 몇 개 추가해 보는 것이 좋겠어.

5. [B]와 유사한 정서가 드러나 있는 것은?

- ① 한바다 복판 용솨음치는 곳 /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城)에는 /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回想)의 무리들아 /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 - 이육사, 꽃 -
- ② 처마끝에 호롱불 여위어 가며 / 서글픈 옛 자취 양 흰 눈이 내려 // 하이얀 입김 절로 가슴이 메어 / 마음 허공에 등불을 켜고 / 내 홀로 밤 깊어 뜰에 내리면 / 먼-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 - 김광균, 설야 -
- ③ 당신을 따라가다 따라가다 / 그만 빈 갯벌이 되어 눕고 말았다 / 쓸쓸한 이 바다에도 다시 겨울이 오고 물살이 치고 / 돌아오지 못한 채 멈추어 선 나를 / 세월은 오래도록 가두어 놓고 있었다. - 도종환, 섬 -
- ④ 이것은 소리없는 아우성 / 저 푸른 해원(海原)을 향하여 흔드는 / 영원한 노스탈자의 손수건 /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풋대 끝에 /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 유치환, 깃발 -
- ⑤ 기름진 냉이꽃 향기로운 언덕, 여기 푸른 잔디밭에 누워서, 철이야, 너는 널 널 널 가락 맞춰 풀피리나 불고, 나는, 나는, 두둥실 두둥실 봉새춤 추며, 막쇠와, 돌이와, 복술이랑 함께, 우리, 우리, 옛날을 옛날을 덩굴어 보자. - 박두진, 어서 너는 오너라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0년 10월

(가)

순이(順伊)가 떠난다는 아침에 말 못할 마음으로 ㉠ **함박 눈**이 내려, 슬픈 것처럼 창밖에 아득히 깔린 지도 우에 덮인다. 방안을 돌아다 보아야 아무도 없다. 벽과 천정이 하얗다. 방안에까지 ㉡ **눈**이 내리는 것일까, 정말 너는 잃어버린 역사처럼 훌훌이 가는 것이냐, 떠나기 전에 일러둘 말이 있든 것을 편지를 써서도 내가 가는 곳을 몰라 어느 거리, 어느 마을, 어느 지붕 밑, 너는 내 마음속에만 남아 있는 것이냐, 네 쪼꼬만 발자욱을 ㉢ **눈**이 자꾸 내려 덮여 따라갈 수도 없다. ㉣ **눈**이 녹으면 남은 발자욱 자리마다 꽃이 피리니 꽃 사이로 발자욱을 찾아 나서면 일 년 열두 달 하냥 내 마음에는 ㉤ **눈**이 나리리라.

- 윤동주, 「눈 오는 지도」 -

(나)

「 감나무쫂 되랴,

[A] 서러운 노을빛으로 익어가는

└ 내 마음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나무는!

「 이것이 제대로 번을 떼는 저승밖에 없는 것 같고

[B] 그것도 내 생각하던 사람의 등 뒤로 번어가서

└ 그 사람의 머리 위에서나 마지막으로 휘드러질까 본데,

「 그러나 그 사람이

[C] 그 사람의 안마당에 심고 싶던

└ 느껴온 열매가 될는지 몰라!

「 새로 말하면 그 열매 빛깔이

[D] 전생의 내 쏘(전) 설움이요 쏘(전) 소망인 것을

└ 알아내기는 알아낼는지 몰라!

「 아니, 그 사람도 이 세상을

[E] 설움으로 살았던지 어쨌던지

└ 그것도 몰라, 그것을 몰라!

- 박재삼, 「한」 -

(다)

거기 나무가 있었네.

노을 속엔

언제나 기러기가 살았네.

붉은 노을이 금관악기 소리로 퍼지면

거기 나무를 세워 두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었네.

쏟아져 내리는 은하수 하늘 아래

창문을 열고 바라보았네.

발뒤축을 들고 바라보았네.

거기 나무가 있었네.

희미한 하류로

머리를 두고 잠이 들었네.

나무가 아이의 잠자리를 찾아와

가슴을 다독여 주고 돌아가곤 했었네.

거기 나무가 있었네.

일만 마리 매미 소리로

그늘을 만들어 주었네.

모든 대답이 거기 있었네.

그늘은 백사장이고 시냇물이었으며

빨기풀이고 땀부기 알이었네.

거기 나무가 있었네.

이제는 무너져 흩어져 버렸지만

둥치마저 타 버려 재가 돼 버렸지만

금관악기 소리로 퍼지던 노을

스쳐가는 늦기리기 몇 마리 있으리.

귀 기울이고 다가서 보네.

까마득한 하류에 나무가 있었네.

거기 나무가 있었네.

- 이건청, 「하류」 -

정리

6.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② 부채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 있다.
- ③ 과거 회상을 통해 고조된 정서가 나타나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고 있다.
- ⑤ 내면의 갈등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나타나 있다.

7. <보기>를 참고할 때, (가)의 ㉠~㉤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는 ‘눈(雪)’의 이미지를 다양하게 변주하면서 이별의 안타까움과 지속되는 순수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 ① ‘순이가 떠난다는 아침에 말 못할 마음으로’ 내리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에는 순이와의 이별에 직면한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 ② ‘방안에까지 눈이 내리는 것일까’라고 하였으므로, ㉡은 화자의 상상 속에서 내리는 눈이겠네요. 이것은 ‘벽과 천정’의 이미지로 연결되면서 이별로 인한 공허함을 드러내 주는 것 같아요.
- ③ 순이의 ‘쫓고만 발자욱’을 ‘자꾸 내려’ 덮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은 순이를 따라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 같아요.
- ④ ‘꽃 사이로 발자욱을 찾아 나서면’으로 보아, ㉣은 순이가 있는 곳으로 화자를 안내하는 ‘지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⑤ ‘일 년 열두 달 하냥’으로 보아, ㉤은 순이를 향한 화자의 변함없는 심정을 상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8. 시인이 (나)를 창작하면서 떠올렸을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는 ‘열매’에서 연상된 빛깔에 화자의 정서를 담아내야지.
- ② [B]에는 나뭇가지가 ‘벗어가’는 형상을 통해 화자의 소망을 표현해야지.
- ③ [C]에는 ‘그러나’를 통해 소망의 성취를 확신하지 못하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야지.
- ④ [D]에는 ‘새로 말하면’을 통해 지금까지 지속되었던 화자의 심경이 변화되고 있음을 나타내야지.
- ⑤ [E]에는 ‘그 사람도’를 통해 ‘그 사람’과 공감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화자의 심리를 표현해야지.

9. (나)와 (다)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와 달리 (다)는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와 달리 (다)는 시각을 청각화하여 선명한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다)와 달리 (나)는 어순을 도치하여 화자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나)와 (다)는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설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07년 3월

(가)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  
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黃金)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盟誓)는 차디  
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微風)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追憶)은 나의 운명(運命)의 지  
침(指針)을 돌려 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떡고, 꽃다운 님의 얼굴  
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  
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源泉)을 만들고 마  
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견잡  
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希望)의 정수박이  
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沈默)을  
휩싸고 돕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

(나) 나의 소년 시절은 은(銀)빛 바다가 엿보이는 그 긴  
언덕길을 어머니의 상여(喪輿)와 함께 꼬부라져 돌아갔다.

내 첫사랑도 그 길 위에서 조약돌처럼 집었다가 조약돌처  
럼 잃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푸른 하늘 빛에 혼자 때없이 그 ㉡길을 넘  
어 강(江)가로 내려갔다가도 노을에 함뿍 자춧빛으로 젖어  
서 돌아오곤 했다.

그 강가에는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나의 나이와  
함께 여러 번 다녀갔다. ㉢가마귀도 날아가고 두루미도 떠  
나간 다음에는 누런 모래둔과 그리고 어두운 내 마음이 남  
아서 뽕서리쳤다. 그런 날은 향유 감기를 만나서 돌아와  
않았다.

할아버지도 언제 난 지를 모른다는 동구 밖 그 늙은 버드  
나무 밑에서 나는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돌아오지  
않는 계집애,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가 돌아올 것만 같아  
명하니 기다려 본다. 그러면 어느새 어둠이 기어와서 내  
뺨의 얼룩을 씻어 준다.

- 김기림, 「길」 -

(다)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붉은 파발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먼지 앉은 석경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듯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붉은 파발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새벽에 준 조로의 물이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젖어 있듯이  
묵은 사랑이  
누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 있을 때  
붉은 파발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 김수영, 「파발가에서」 -

정리	
----	--

10.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자연과 인간을 대립시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모순 어법을 통해 화자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재회에 대한 화자의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 (나), (다) 모두 시상의 흐름이 바뀌면서 어조가 변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 모두 화자 자신에 대한 비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11. (나)의 ㉠과 시적 정조가 가장 유사한 것은? [3점]

- ① 적막한 겨우내 들녘 끝 어디에서 / 작은 깃을 엮고 다리 오그리고 지내다가 / 이 보오얀 봄길을 찾아 문안하여 나왔노. - 유지환, '춘신(春信)' -
- ② 우리 모두 화살이 되어 / 온몸으로 가자. / 허공 뚫고 / 온몸으로 가자. / 가서는 돌아오지 말자. / 박혀서 / 박힌 아픔과 함께 썩어서 돌아오지 말자. - 고은, '화살' -
- ③ 지는 저녁 해를 바라보며 /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였습니다. / 날 저문 하늘에 별들은 보이지 않고 / 잠든 세상 밖으로 새벽달 빈 길에 뜨면 / 사랑과 어둠의 바닷가에 나가 / 저무는 섬 하나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 정호승, '또 기다리는 편지' -
- ④ 사립 너머 멀리 / 면사무소 지붕 위의 울림퓌기 휘날리고 / 예의 확성기에선 울림퓌노래 울려 퍼져도 / 우리의 기쁨은 화려한 데 / 시끄러운 데 있지 않고 / 노상 가슴 설레고 가슴 뿌듯한 이 일 / 씨 뿌리고 거두는 일에 하루해 뜨고 진다. - 고재중, '텃밭에서의 하루' -
- ⑤ 1947년 봄 / 심야(深夜) / 황해도(黃海道) 해주(海州)의 바다 / 이남과 이북의 경계선(境界線) 용당포. // 사공은 조심조심 노를 저어가고 있었다. / 울음을 터뜨린 한 영아(嬰兒)를 삼킨 곳. / 스무 몇 해나 지나서도 누구나 그 수심(水深)을 모른다. - 김종삼, '민간인' -

12.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와 ㉡는 모두 화자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곳이다.
- ② ㉠와 ㉡는 모두 화자에게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곳이다.
- ③ ㉠는 화자의 아픔을 심화시키는 곳이고, ㉡는 화자의 아픔을 해소시키는 곳이다.
- ④ ㉠는 화자에게 과거를 보게 하는 곳이고, ㉡는 화자에게 미래를 보게 하는 곳이다.
- ⑤ ㉠는 화자에게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는 곳이고, ㉡는 화자에게 방향을 유발시키는 곳이다.

13. <표>는 (다)를 감상하면서 생긴 의문들이다. 그 의문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삶은 계란의 껍질'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바로 아래 행에서 '~ 듯'이라고 표현된 것으로 보아, '묵은 사랑'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걸 거야 ㉠
↓	
왜 '벗겨 내야할 때'가 아니라 '벗겨질 때'라고 했을까?	'벗겨 내야할 때'와 '벗겨질 때'는 강제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잖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억지로 떨쳐 내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떨쳐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그랬을 거야. ㉡
↓	
'붉은 파발'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붉은 파발'은 새싹이 돌아나는 장소잖아. 이것은 묵은 것과 새싹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장소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걸 거야 ㉢
↓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얻는 것'과 '잃는 것'의 관계를 말한 것 같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것을 잃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랬을 거야. ㉣
↓	
각 연의 구성 방식을 거의 동일하게 한 이유는 뭘까?	시상 전개에 안정감을 주면서도 화자 자신의 생각을 강조해서 드러내고 싶어서 그랬을 거야 ㉤

- ① ㉠      ② ㉡      ③ ㉢      ④ ㉣      ⑤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09년 수능

(가)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갈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헐싸고 돕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

(나) 크낙산 골짜기가 온통 연록색으로 부풀어 올랐을 때 그러니까 신록이 우거졌을 때 그곳을 지나가면서 나는 미처 몰랐었다

뒷절로 가는 길이 온통 주황색 단풍으로 물들고 나뭇잎들 무더기로 바람에 떨어지던 때 그러니까 낙엽이 지던 때도 그곳을 거닐면서 나는 느끼지 못했었다

이렇게 한 해가 다 가고 눈발이 드문드문 흩날리던 날 앙상한 대추나무 가지 끝에 매달려 있던

**㉢ 나뭇잎 하나 문득 혼자서 떨어졌다**

저마다 한 개씩 돌아나 여럿이 모여서 한여름 살고 마침내 저마다 한 개씩 떨어져 그 많은 나뭇잎들 사라지는 것을 보여 주면서

- 김광규, 「나뭇잎 하나」 -

(다) 삼경에 못 든 잠을 사경 말에 비로소 들어

상사(相思)하던 우리 님을 꿈 가운데 해후하니 **시름과 한(恨)** 못다 일러 한바탕 꿈 흩어지니 **아리따운 고운 얼굴** 곁에 얼핏 앉았는 듯 어화 아득하다 꿈을 생시 삼고지고 잠 못 들어 탄식하고 바삐 일어나 바라보니 구름산은 첩첩하여 천리몽(千里夢)을 가려 있고 흰 달은 창창하여 두 마음을 비추었다 **좋은 기약** 막혀 있고 세월이 하도 할사 옛그제 꽃이 버들 곁에 붙었더니 그 곁에 훌훌하여\* 잎에 가득 가을 소리라 **새벽 서리** 지는 달에 외기러기 슬피 울 제 반가운 님의 소식 행여 올까 바라더니 아득한 구름 밖에 빈 소리뿐이로다 지리하다 이 이별이 언제면 다시 볼까 **어화** 내 일이야 나도 모를 일이로다 이리저리 그리면서 어이 그리 못 가는고 약수(弱水)\* 삼천 리 멀단 말이 이런 곳을 일렀구나 [ 산 머리에 조각달 되어 님의 닢에 비추고자 바위 위에 오동 되어 님의 무릎 베고자 [A] 빈산에 잘새 되어 북창(北窓)에 가 울고자 지붕 위 아침 햇살에 제비 되어 날고지고 옥창(玉窓)의 앵두화에 나비 되어 날고지고 태산이 평지 되도록 금강이 다 마르도록 평생 슬픈 회포 어디에 견주리오

- 작자 미상, 「춘면곡(春眠曲)」 -

\* 훌훌하여: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 약수: 신선이 사는 땅에 있다는 강 이름.

정리

14.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 ② 자연의 변화를 표현하여 화자의 미래를 암시한다.
  - ③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예찬한다.
  - ④ 관조적인 자세로 대상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
  - ⑤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1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서는 시상이 확산되고 있다.
  - ② ㉠과 ㉡ 모두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③ ㉠은 ㉡과 달리 화자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
  - ④ ㉡은 ㉠에 비해 역동적인 느낌이 두드러진다.
  - ⑤ ㉠은 사실의 기술이, ㉡은 관념의 표현이 부각된다.

16. (가)와 (다)를 대응시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첫 번째 '아아'와 (다)의 두 번째 '어화'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비탄의 표현으로 볼 수 있군.
  - ② (가)의 '차디찬 티끌'과 (다)의 '새벽 서리'는 허무하게 깨진 인연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통하네.
  - ③ (가)의 '꽃다운 님의 얼굴'과 (다)의 '아리따운 고운 얼굴'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 ④ (가)의 '눈물'과 (다)의 '시름과 한'은 이별로 인해 생겨난 슬픔이라 할 수 있어.
  - ⑤ (가)의 '다시 만날 것'과 (다)의 '좋은 기억'은 '님'과 만나고 싶은 소망과 관련되었군.

17.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1연, 2연에서 유사한 구조의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대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② 1~3연에서 '골짜기'→'길'→'대추나무'→'나뭇잎 하나'로 시적 대상이 바뀌면서 화자와 대상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 ③ 1~4연에서 '그러니까', '문득', '마침내'와 같은 부사는 독자로 하여금 화자의 인식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 ④ 4연에서 '저마다 한 개씩'이라는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세상과 화합할 수 없는 존재의 고뇌를 강조하고 있다.
  - ⑤ 4연에서 화자는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자연물의 변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있다.

18.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님의 침묵」에서 '노래'와 '침묵'은 화자와 '님'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시어이다. 한용운은 시 「반비레」에서 "당신이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는 때에 당신의 노랫가락은 역력히 들립니다그러 / 당신의 소리는 침묵이에요"라고 했다. 침묵이라는 부재의 상태에서 '님'의 실재를 본 것이다. 화자는 '님'을 향해 '노래'를 부르는데, 시 「나의 노래」에서 "나의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서 멀리 계신 님에게 들리는 줄"을 안다고 했다. 이는 화자가 자신의 노래에 '님'과 근원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노래가 제 곡조를 못 이긴다는 것은 '님'이 침묵하는 상황을 화자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야.
- ② 노래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는 것은 화자가 부재 속에 실재하는 '님'과 깊이 교감한다는 뜻이야.
- ③ '나의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서 멀리 나아간다고 한 데서 '사랑의 노래'가 자연 친화적임을 알 수 있어.
- ④ 침묵을 휩싸고 도는 노래가 '사랑의 노래'라는 것은 침묵이 끝나야 사랑이 비로소 시작되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
- ⑤ 침묵하는 '님'에게서 노랫가락을 역력히 듣는다는 데서 '사랑의 노래'가 화자의 노래가 아니라 '님'의 노래임을 알 수 있어.

19. <보기>를 참고하여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시조나 가사에는, 입과 헤어져 있는 화자가 어떤 특정한 자연물로 다시 태어나서 입의 곁에 머물고 싶다는 진술이 흔히 나타난다. 이러한 진술은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기 위한 관습적 표현인데, 그 속에는 당대인들의 세계관이 투영되어 있다. 인간과 자연이 깊은 관련을 맺으며 조화를 이룬다는 인식, 현세의 인연이 후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순환적 인식 등이 그것이다. 시가에 담긴 이러한 인식은 화자가 현실의 고난이나 결핍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 ① 관습적인 표현을 활용한 것은 개인적 정서를 보편적인 것으로 느끼게 하는 데 효과적이었겠어.
- ② 비슷한 의미 구조를 지니는 구절을 거듭 제시함으로써 화자의 소망이 간절함을 강조하고 있어.
- ③ ‘오동’, ‘제비’, ‘나비’ 등이 사용된 데서, 인간과 자연이 관련되어 있다는 화자의 인식을 엿볼 수 있어.
- ④ ‘조각달’이나 ‘잘새’ 같은 소재에는 ‘님’과 함께 크고 넓은 세계로 도약하려는 화자의 희망이 담겨 있어.
- ⑤ 자연물로 변해서라도 ‘님’과 만나려 하는 것을 보니 화자가 ‘님’과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4년 7월 8형

(가) ㉠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指針)을 들  
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  
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  
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건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  
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 아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

(나) 시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

서른 먹은 사내가 하나 잠을 못 잔다.

먼 기적 소리 차마를 스쳐가고

잠들은 아내와 어린것의 베갯말에

밤눈이 내려 쌓이나 보다.

**무수한 손에 뺨을 얻어맞으며**

항시 곤두박질해 온 생활의 노래

**지나는 들팔때에도** 이제는 피곤하다.

먹고 산다는 것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오느냐.

**등불을 켜고 일어나** 앉는다.

담배를 피워 문다.

**쉴쉴한 것이 오장을 씻어 내린다.**

노신\*이여

이런 밤이면 그대가 생각난다.

온 세계가 눈물에 젖어 있는 밤

상해(上海) 호마로(胡馬路) 어느 뒷골목에서

쉴쉴히 앉아 지키던 등불

등불이 나에게 속삭거린다.

여기 하나의 상심한 사람이 있다.

여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

- 김광균, 「노신」 -

\* 노신(魯迅): 루쉰, 중국의 문학가이자 사상가.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으며 가족 제도의 폐해를 폭로하거나 중국의 의식 개혁을 주장하는 등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들을 저술함.

정리	
----	--

20. (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현실 초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② 부정적 상황이 창작의 계기가 되고 있다.
- ③ 억압적 현실에 대한 비애가 드러나 있다.
- ④ 대상에 대한 원망이 표면에 나타나 있다.
- ⑤ 과거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반성이 나타나 있다.

2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입을 잃은 상실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② ㉡: 대비적 의미를 지닌 시구를 통해 화자의 좌절감을 그려내고 있다.
- ③ ㉢: 연쇄법을 사용하여 입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 접속어를 사용하여 이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역설적인 표현 방식을 통해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2.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김광균의 「노신」은 시인으로서 어렵게 살아온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시의 화자는 예술가로서의 신념을 흔드는 생활인으로서의 현실적 고통으로 인해 고뇌하던 중, 고단한 삶 속에서도 신념을 지켰던 노신의 삶을 떠올리며 위안을 얻고 있다.

- ① ‘시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는 시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드러내는 화자의 탄식이라 할 수 있군.
- ② ‘무수한 손에 뺨을 얻어맞으며’, ‘지나는 돌팔매’에서 화자가 그동안 견뎌왔던 생활인으로서의 고통을 짐작할 수 있군.
- ③ ‘등불’은 화자가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노신의 삶을 떠올리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군.
- ④ ‘쓸쓸한 것이 오장을 씻어 내린다’에서 예술가로서의 신념을 지키기 힘든 상황에 대한 화자의 고뇌가 느껴지는군.
- ⑤ ‘하나의 군세계 살아온 인생’에서는 노신처럼 사회의 개혁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02년 3월

(가) 성북동 비둘기

김광섭

성북동 산에 ㉠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돈다.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짝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쳐서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앉아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산 1번지 채석장에 도루 가서  
금방 따낸 돌 온기(溫氣)에 입을 닦는다.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聖者)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남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나) 젊은 손수 운전자에게

김광규

네가 벌써 **자동차**를 가지게 되었으니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도 하다.  
운전을 배울 때는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을  
네가 대견스러웠다.  
**면허증**은 무엇이나 따 두는 것이  
좋다고 나도 여러 번 말했었지.

[가] 이제 너는 차를 몰고 달려가는구나.  
철따라 달라지는 가로수를 보지 못하고  
길가의 **과일 장수**나 생선 장수를 보지 못하고  
아픈 애기를 업고 뛰어가는 **여인**을 보지 못하고  
**교통 순경**과 신호등을 살피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구나.  
너의 눈은 빨라지고  
너의 마음은 더욱 바빠졌다.  
앞으로 기름값이 또 오르고  
매연이 눈앞을 가려도  
너는 차를 두고

걸어다니려 하지 않을 테지.  
걷거나 뛰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남들이 보내는 젊은 나이를 너는  
시속 60km 이상으로 지나가고 있구나.  
네가 차를 몰고 달려가는 것을 보면  
너무 가볍게 멀어져 가는 것 같아  
나의 마음이 무거워진다.

(다) 벼

이성부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햇살 따가워질수록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마음들을 보아라. 벼가 출출 때,  
벼는 소리없이 떠나간다.

벼는 **가을 하늘**에도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바람** 한 점에도  
제 몸의 노여움을 덮는다.  
저의 가슴도 더운 줄을 안다.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디넓은 사랑,  
쓰러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이 피 묻은 그리움,  
이 넉넉한 힘…….

정리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03년 10월

(가) 강물 아래로 강물 아래로  
한 줄기 어두운 이 강물 아래로  
검은 밤이 흐른다.  
은하수가 흐른다.

㉔ 낮은 밤에 숨막히는 나도 흐르고

은하수에 빠진 푸른 별이 흐른다.

강물 아래로 강물 아래로  
못 견디게 어두운 이 강물 아래로  
빛나는 태양이  
다다를 무렵

㉕ 이 강물 어느 지류에 조각처럼 서서

나는 다시 푸른 하늘을 우러러 보리.....

- 신석정, '어느 지류에 서서' -

(나) 판자집 유리막지에  
아이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마냥 걸려 있다.

㉖ 내리쬐이던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나도 돌아선다.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춘다.  
젓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망울졌다.

┌ 저기 언덕을 내리달리는

[A] 소녀의 미소에 앞니가 빠져

└ 죄 하나도 없다.

나는 술 취한 듯 흥그러워진다.

㉗ 그림자 웃으며 앞장을 선다.

- 구상, '초토의 시 1' -

(다) 어찌라, 하늘 가득 머리 풀어 울고 우는 빗줄기, 뜨락에 와 가득히 당도하는 저녁 나절의 저 음험한 비애의 어깨들, 오, 어찌라, 나 차가운 한 잔의 술로 더불어 혼자 일 따름이로다. 뜨락엔 작은 나무 의자 하나, 깊이 젖고 있을 따름이로다. 전재산(全財産)이로다.

어찌라, 그대도 들으시는가, 귀 기울이면 내 유년(幼年)의 캄캄한 늪에서 한 마리의 이무기는 살아남아 울도다. 오, 어찌라, 때가 아니로다, 때가 아니로다, 때가 아니로다, 온 국토의 별판을 기일게 기일게 혼자서 건너가는 비에 젖은 소리의 뒷등이 보일 따름이로다.

㉘ 어찌라, 나는 없어라. 그리운 물. 설설설 끓이고 싶은 한 가마솥의 뜨거운 물. 우리네 아궁이에 지퍼어지던 어머니의 불, 그 잘 마른 삭정이들, 불의 살점들. 하나도 없이

오, 어찌라, 또 다시 나 차가운 한 잔의 술로 더불어 오직 혼자일 따름이로다. 전재산(全財産)이로다, 비인 집이로다, ㉙ 들판의 비인 집이로다. 하늘 가득 머리 풀어 빗줄기만 울고 울도다.

- 정진규, '들판의 비인 집이로다' -

정리	
----	--

2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에는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 ② (가)와 (다)는 과거와 현재를 병치시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나)와 (다)에는 내적인 갈등의 해소 과정이 드러나 있다.
- ④ (가)~(다)의 화자는 모두 사물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
- ⑤ (가)~(다) 모두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29. [A]가 <보기>를 고쳐 쓴 것이라고 가정할 때, 그 결과를 두고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한 소녀가  
저기 언덕을 내려가고 있다.  
미소를 머금은 소녀는  
죄가 하나도 없다.

- ① 시상이 좀더 집약되었다는 느낌이 들어.
- ② 일상적인 어법을 파괴한 시적 표현이 되었군.
- ③ ‘죄’라는 시어가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겠네.
- ④ 소녀의 모습이 좀더 생기 있게 그려진 것 같아.
- ⑤ 소녀와 화자 사이의 공간적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군.

30. <보기>는 (다)의 **이무기**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다. <보기>를 활용하여 (다)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무기’는 어떤 저주에 의하여 용이 되지 못하고 물속에 산다는, 여러 해 묵은 큰 구렁이를 가리킨다. 이무기가 용이 되어 승천하기 위해서는 천 년을 묵은 뒤 적절한 때에 비를 얻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랫동안 묵은 이무기는 한이 쌓여서 나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 ① ‘이무기’는 승천하지 못한 한을 품은 존재로서, 한을 안고 슬픔에 젖어 있는 시적 화자를 표상한다.
- ② ‘비’는 ‘이무기’의 한 맺힌 슬픔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 ③ ‘유년(幼年)의 캄캄한 늪에서 한 마리의 이무기는 살아남아라는 표현으로 보아 시적 화자는 한스러운 과거와 단절되고 싶어한다.
- ④ ‘때가 아니로다’는 ‘이무기’의 독백을 빌려 시적 화자의 한탄을 드러내는 말로 볼 수 있다.
- ⑤ ‘이무기’가 ‘온 국토의 별판을 혼자서’ 건너간다는 표현으로 보아 이 노래는 민족 전체의 한을 표현한 것으로 확대해 볼 수 있다.

31. ㉠과 시적 정조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 우리가 저와 같아서 / 강변에 나가 삼을 씻으며 /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 정희성, ‘저문 강에 삼을 씻고’ -
- ② 바람은 탄 데서도 오고 / 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고 / 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  
- 김수영, ‘절망’ -
- ③ 그대는 아는가 / 모든 생성하는 존재는 동글다는 것을 / 스스로 먹힐 줄 아는 열매는 / 모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 오세영, ‘열매’ -
- ④ 우리가 슬픔을 사랑하기까지는 / 슬픔이 우리들을 완성하기까지는 / 슬픔으로 가는 새벽길을 걸으며 기도하라. / 슬픔의 어머니를 만나 기도하라.  
- 정호승, ‘슬픔을 위하여’ -
- ⑤ 마을아 역센 풀아 무너진 흙담들아 / 언젠가 돌아가리라 너희들 물 틈으로 / 나 또한 한 많은 물방울 되어 세상길 흘러 흘러 / 돌아가 고향 하늘에 홀로 글썽이리.  
- 이동순, ‘물의 노래’ -

3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시간적 배경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 화자가 역사의 중심에서 비켜서 있음을 암시한다.
- ③ ㉢ : 아이들의 아름다움에 취한 화자의 감동이 드러나 있다.
- ④ ㉣ : 화자의 현실 인식과 대응 태도가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 ⑤ ㉣ : 화자의 내면이 사물을 통해 형상화되어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4년 11월 고1

(가)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말목까지  
 말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 김수영, 「풀」 -

(나)  
 눈 내려 어두워서 길을 잃었네  
 갈 길은 멀고 길을 잃었네  
 눈사람도 없는 겨울밤 이 거리를  
 찾아오는 사람 없어 노래 부르니  
 눈 맞으며 세상 밖을 돌아가는 사람들뿐  
 등에 업은 아기의 울음소리를 달래며  
 갈 길은 먼데 함박눈은 내리는데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기 위하여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용서하기 위하여  
 눈사람을 기다리며 노랏 부르네  
 세상 모든 기다림의 노랏 부르네  
 눈 맞으며 어둠 속을 떨며 가는 사람들을  
 노래가 길이 되어 앞질러 가고  
 돌아올 길 없는 눈길 앞질러 가고  
 아름다움이 이 세상을 건질 때까지  
 절망에서 즐거움이 찾아올 때까지  
 함박눈은 내리는데 갈 길은 먼데  
 무관심을 사랑하는 노랏 부르며  
 눈사람을 기다리는 노랏 부르며  
 이 겨울 밤거리의 눈사람이 되었네  
 봄이 와도 녹지 않을 눈사람이 되었네

- 정호승, 「맹인 부부 가수」 -

정리

33.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절감을 드러내어 시의 주제를 강화한다.
- ② 유사한 어구를 반복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한다.
- ③ 의성어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생동감을 부여한다.
- ④ 반어적 표현을 통해 대상이 지닌 의미를 강조한다.
- ⑤ 상승과 하강 이미지를 교차하여 시적 분위기를 환기한다.

34.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이 시는 시상이 전개될수록 점점 강화되는 억압과 그 상황에 대처하는 풀의 움직임을 다양한 부사어를 활용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시상 전개에 따른 풀의 움직임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연 : 바람 때문에 눕고 우는 풀  
 2연 :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풀  
 3연 : 바람보다 먼저 웃는 풀

- ① 1연에서 ‘드디어’는 풀이 억압적인 상황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음을 나타낸다.
- ② 1연에서 ‘더’, ‘다시’는 풀이 눕고 우는 모습을 수식하여 풀에 가해진 시련이 만만치 않음을 나타낸다.
- ③ 2연에서 ‘빨리’와 ‘먼저’는 풀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 ④ 3연에서 ‘밭목까지’, ‘밭밑까지’는 풀이 눕는 강도가 더 심해지는 것으로 풀에 대한 억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⑤ 3연에서 ‘늦게’, ‘먼저’는 억압적인 상황이 풀의 내적 성숙을 지연시키고 있음을 부각한다.

35.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시인은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맹인 부부 가수의 모습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 세계의 단면을 제시하고 있다. 앞날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시대 현실 속에서,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영위하면서도 기다림의 자세로, 사랑과 화해로 이루어질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민중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 ① ‘눈사람도 없는 겨울밤 이 거리’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부정적인 현실 상황을 비유한 것이겠군.
- ②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기 위하여’,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용서하기 위하여’에서 사랑과 화해를 지향하는 시인의 바람을 엿볼 수 있군.
- ③ ‘눈 맞으며 어둠 속을 떨며 가는 사람들’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민중을 의미하는 것이겠군.
- ④ ‘아름다움이 이 세상을 건질 때까지’, ‘절망에서 즐거움이 찾아올 때까지’에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봄이 와도 녹지 않을 눈사람’은 희망의 시간이 와도 민중에게 시련과 고통이 여전히 지속될 것임을 나타낸 것이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2년 인수

(가) 대바람 소리 / 들리더니  
소소한 대바람 소리 / 창을 흔들더니

소설(小雪) 지낸 하늘을 / 눈 머금은 구름이 가고 오는지  
미닫이에 가끔 / 그들이 진다.

국화 향기 흔들리는 / 좁은 서실(書室)을  
무료히 거닐다 / 앉았다, 누웠다  
잠들다 깨어 보면 / 그저 그런 날을

눈에 들어오는 / 병풍의 '낙지론(樂志論)'을  
읽어도 보고……

그렇다 / 아무리 쪼들리고 / 웅송거릴지언정  
— '어찌 제왕의 문에 들을 부러워하라'

대바람 타고 / 들려오는 / 머언 거문고 소리……  
— 신석정, '대바람 소리'

(나)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  
발 아래 구부리고 엎드린 작고 큰 산들이며  
떨어져 나갈까 봐 **㉠잔뜩 겁을 집어먹고**  
언덕과 골짜기에 바짝 달라붙은 마을이며  
다만 무릎까치라도 다가오고 싶어  
안달이 나서 몸살을 하는 바다를 내려다보니  
온통 세상이 다 보이는 것 같고  
또 **㉡세상살이 속속들이 다 알 것도 같다.**  
그러다 속초에 내려와 하룻밤을 묵으며  
중앙시장 바닥에서 다 늙은 함경도 아주머니들과  
노령노래 안주해서 소주도 마시고

피난민 신세타령도 듣고  
다음날엔 원통으로 와서 뒷골목엘 들어가  
**㉢지린내 땀내도 맡고 악다구니도 듣고**  
짜구려 하숙에서 마늘장수와 실랑이도 하고  
젊은 군인부부 사랑싸움질 소리에 잠도 설치고 보니  
세상은 아무래도 **㉣산 위에서 보는 것과 같지만은 않다.**  
**㉤지금 우리는 흑시** 세상을  
너무 멀리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너무 가까이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 신경림, '장자\*'를 빌려 - 원통에서'

(다) 讀書當日志經綸 독서당일지경륜  
歲暮還甘顏氏貧 세모환감안씨빈  
富貴有爭難下手 부귀유쟁난하수  
林泉無禁可安身 임천무금가안신  
採算釣水堪充腹 채산조수감충복  
咏月吟風足暢神 영월음풍족창신  
學到不疑知快關 학도불의지쾌활  
免教虛作百年人 면교허작백년인

독서하던 당년에 경륜에 뜻을 두었더니  
늘어가며 안빈낙도 오히려 달갑구나  
부귀엔 시샘 많아 손대기 어려웠고  
임천엔 금함 없어 심신이 편안하였네  
채산조수하여 배를 채우고  
음풍영월로 마음을 풀었네 / 학문이란 의혹 없어야 상쾌  
하나니  
평생의 허랑함을 면케 할 수 있네.  
— 서경덕, '독서유감(讀書有感)'

\*장자: 중국 고대 도가의 사상가  
\*안희: 중국 노나라 사람으로 공자의 제자. 학덕이 높고 재질이 뛰어남

정리

36.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상을 살아가는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 ②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화자의 성찰이 드러나고 있다.
- ③ 지나온 삶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잘 드러나고 있다.
- ④ 집단적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강조하며 교훈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자연물과 화자의 유사점을 제시하며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37. <보기>의 자료들을 활용하여 (가)~(다)를 감상할 때,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자료 1-(가)의 참고 자료**

낙지론(樂志論)

한가로이 놀며 자유롭게 사는 삶을 즐길 뿐이라는 중국 학자중장통(仲長統)의 글. 그는 왕을 따르는 것은 입신양명(立身揚名)을 위한 것이라 여기며 왕이 부를 때마다 병을 핑계로 나아가지 않았다.

**자료 2-(나)의 참고 자료**

『장자』 ‘추수편(秋水篇)’ - “대지관어원근(大知觀於遠近)” 큰 지혜는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서도 본다. 즉, 삶을 바라볼 때에는 두 관점을 모두 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자료 3-(다)의 참고 자료**

안회 - 공자가 가장 아끼던 제자로, 공자는 그가 가난한 삶 속에서도 늘 즐거워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을 보고 “어질도다, 안회여!”라고 칭송했다고 한다.

- ① ‘자료1’을 통해 (가)의 ‘어찌 제왕(帝王)의 문(門)에 들을 부러워하랴’의 의미를 추리할 수 있어서 작품의 주제가 더 선명하게 부각되는군.
- ② ‘자료 2’를 통해 (나)의 ‘너무 멀리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 너무 가까이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구절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군.
- ③ ‘자료 3’을 통해 (다)의 화자가 안회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군.
- ④ ‘자료2’는 (나)의 제목에 대해, ‘자료3’은 (다)의 ‘안회(顏回)의 가난’이라는 시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군.
- ⑤ (가), (나)에서는 선인의 글을 제재로 활용한 반면, (다)에서는 ‘자료 3’의 인물을 인용하여 선인의 글을 읽는 방법과 태도에 대해 강조하고 있군.

38.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마을의 모습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② ㉡: 세상살이의 이치를 알 것 같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가난하고 외로운 자신의 상황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④ ㉣: 삶에 대해 산 위에서와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 ⑤ ㉣: 자신의 태도가 과연 올바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39.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신석정은 제4시집 『산의 서곡』을 내놓으며 “시와 더불어 이순(耳順: 60세)이 넘었다. 그동안 역사의 흙탕물 줄기가 무참하게도 내 정신세계를 여러 번 짓밟고 달아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허튼 속정(명예와 이익을 바라는 마음)에 몸을 굽히거나 한눈팔기에 나를 크게 소모한 적이 없음을 자위한다. 시가 잘 되고 못 됨은 공정에 앞서 오로지 선천적 천분에 맡길 일ियो 나대로 저 큰 산의 의연한 모습으로 시에 임하는 자세는 예나 다름없다.”라며 여생에 대한 다짐을 밝혔다. (가)는 이 직후에 발표된 작품이다.

- ① ‘미닫이에 가끔 / 그들이 진다’에는 ‘이순이 넘’은 것에 대한 시인의 애상적 정서가 드러나 있군.
- ② ‘그렇다!’라는 영탄적 표현은 시인의 ‘여생에 대한 다짐’을 압축하고 있군.
- ③ ‘아무리 쪼들리고/ 웅숭거릴지언정’에는 ‘한눈팔기’를 거부하는 시인의 단호함이 드러나는군.
- ④ ‘제왕(帝王)의 문(門)에 들’에 연연해하지 않은 것은 ‘허튼 속정’에 몸을 굽히지 않으려는 자세를 보여주는군.
- ⑤ ‘국화향기’, ‘거문고소리’는 시인이 지니고 있는 ‘정신세계’를 형상화하고 있군.

40. (다)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독서를 시작할 때 품었던 뜻을 지키지 못해 자책하고 있군.
- ② 자연 속의 삶을 만끽하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고 있군.
- ③ 자연을 즐기는 가운데 학문을 성취하는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있군.
- ④ 부와 명예를 좇으며 사는 현재의 허망한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군.
- ⑤ 학문적 회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세월의 힘이라고 믿고 있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5년 인수 B형

(가)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욱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 윤동주, ‘참회록’

(나) 추위가 칼날처럼 다가든 새벽

㉠ 무심히 커튼을 젖히다 보면

유리창에 피어난, 아니 이런 황홀한 꿈을 보았다.

㉡ 세상과 나 사이에 밤새 누가

이런 투명한 꽃을 피워 놓으셨을까.

㉢ 들녘의 꽃들조차 제 빛깔을 감추고

씨앗 속에 깊이 숨죽이고 있을 때

이내 스러지는 니르바나의 꽃을

저 얹고 날카로운 유리창에 누가 새겨 놓았을까.

허긴 사람도 그렇지.

가장 가혹한 고통의 밤이 끝난 자리에

가장 눈부시고 부드러운 꿈이 일어서지.

새하얀 신부 앞에 붉고 푸른 색깔들 입 다물듯이

들녘의 꽃들 모두 제 향기를

씨앗 속에 깊이 감추고 있을 때

㉣ 어둠이 스며드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누가 저토록 슬픈 향기를 새기셨을까.

㉤ 한 방울 물로 스러지는

불가해한 비애의 꽃송이들을.

— 문정희, ‘성에꽃’

\*니르바나: 모든 번뇌의 얽매임에서 벗어난 경지인 열반을 뜻하는 말.

정리

4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사물에 인격을 부여해 시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고 있다.
- ④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의문형 진술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42.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리 거울’을 통해 ‘내 얼굴’을 보고 욱되다고 생각한 것이 ‘참회록’을 쓰게 된 계기가 된다.
- ② 화자는 과거와 같은 삶을 앞으로도 지속하게 된다면 미래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후 회하게 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다.
- ③ 화자는 미래에 또 다른 ‘참회록’을 쓰지 않기 위해 ‘거울’을 닦기 시작한다.
- ④ 화자가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거울’을 닦는 행위는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 ⑤ 화자가 보게 되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은 ‘구리 거울’ 속에 있던 ‘어느 왕조의 유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3. <보기>는 (나)와 관련한 학생들의 탐구 활동 결과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성애꽃’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 ‘성애꽃’을 ‘황홀한 꿈’, ‘니르바나의 꽃’ 등에 비유하고 있어. ㉠
- ⇨ ‘투명한 꽃’이라는 표현을 통해 성애꽃의 순수한 속성을 드러내고 있어. ㉡
- 시적 배경 설정의 효과는 무엇일까?  
 ⇨ 추운 겨울 ‘새벽’을 시간적 배경으로, ‘얇고 날카로운 유리창’을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해 어려운 상황을 이겨 낸 ‘성애꽃’의 강인한 속성을 강조하고 있어. ㉢
- 작가의 주제 의식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을까?  
 ⇨ ‘성애꽃’의 속성에서 사람의 삶을 유추하여 사람에게도 ‘가장 가혹한 고통의 밤’이 끝나갈 때 ‘가장 눈부시고 부드러운 꿈’이 나타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어. ㉣
- ⇨ 일상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는 성애꽃에 주목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은 어떠한가?  
 ⇨ ‘누가 저토록 슬픈 향기를 새기셨을까.’ 등을 통해 화자의 감정을 절제하면서 ‘성애꽃’의 생동감 있는 모습을 더욱 부각하고 있어. ㉤

- ① ㉠    ② ㉡    ③ ㉢    ④ ㉣    ⑤ ㉤

44. ㉠~㉣ 중 <보기>와 관련 있는 것은?

<보기>

우리는 곧 소멸을 앞둔 찰나적 속성을 지닌 존재에 대해 아름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4년 인수 B형

4·19가 나던 해 세밑  
 우리는 오후 다섯 시에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불도 없이 차가운 방에 앉아  
 하얀 입김 뿜으며  
 열면 토론을 벌였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리라 믿었던 것이다  
 결론 없는 모임을 끝낸 밤  
 혜화동 로터리에서 대포를 마시며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역 문제 때문에  
 우리는 때 묻지 않은 고민을 했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노래를  
 누구도 흥내 낼 수 없는 노래를  
 저마다 목청껏 불렀다  
 돈을 받지 않고 부르는 노래는  
 겨울밤 하늘로 올라가  
 별똥별이 되어 떨어졌다  
 그로부터 18년 오랜만에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 되어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되어  
 넥타이를 매고 다시 모였다  
 회비를 만 원씩 걷고  
 처자식들의 안부를 나누고  
 월급이 얼마인가 서로 물었다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며  
 즐겁게 세상을 개탄하고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어  
 떠도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모두가 살기 위해 살고 있었다  
 아무도 이젠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적잖은 술과 비싼 안주를 남긴 채  
 우리는 달라진 전화 번호를 적고 헤어졌다  
 몇이서는 포우커를 하러 갔고  
 몇이서는 춤을 추러 갔고  
 몇이서는 허전하게 동승동 길을 걸었다  
 돌돌 말은 달력을 소중하게 옆에 끼고  
 오랜 방황 끝에 되돌아온 곳  
 우리의 옛사랑이 피 흘린 곳에  
 낯선 건물들 수상하게 들어섰고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아직도 남아 있는 몇 개의 마른 잎 흔들며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바람의 속삭임 귓전으로 흘러며  
 우리는 짐짓 중년기의 건강을 이야기했고  
 또 한 발짝 깊숙히 늪으로 발을 옮겼다  
 - 김광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정리

45.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역설적 상황을 설정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화자의 의식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제시하여 현실감을 더해 주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여 현재 화자가 느끼는 만족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공감각적 심상의 시어를 사용해 화자의 비참한 현재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4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은 ㉠ '4·19 혁명'의 주역이었던 세대가 그 일로부터 '18년'이 지난 후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 표현하고 있다. 특히, 작품의 화자는 이들의 변화를 '노래'와 '이야기'라는 단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① '때 묻지 않은 고민'을 하며 불렀던 노래 대신 '회비', '처자식들의 안부', '월급'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통해, 현실에 순응하며 살게 된 ㉠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어.
- ②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노래를 불렀던 예전과 달리 '즐겁게 세상을 개탄하'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통해, 세상일을 남의 이야기인 듯 바라보게 된 ㉠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어.
- ③ '흉내 낼 수 없는' 노래를 불렀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떠도는' 이야기나 '주고받'게 된 상황을 통해, 개인 문제보다 사회 문제로 관심사가 확장된 ㉠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어.
- ④ '목청껏 부르던 노래 대신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어' 이야기하는 현재의 모습을 통해,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 당당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처지가 된 ㉠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어.
- ⑤ '돈을 받지 않고 부르는' 노래 대신에 지금은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는 이야기나 하는 모습을 통해 순수와 열정을 잃고 살아가게 된 ㉠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어.

47. [보기]는 [A]를 영상화하기 위한 계획서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S# 6 동승동 거리, 밤

- 한 무리의 남자들이 화려한 도시의 거리를 걷고 있다. 남자들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감회 어린 표정을 짓고 있다. ㉠
- 플라타너스 가로수 길에 들어선 그들이 문득 발걸음을 멈춘다. 한곳에서 플라타너스를 보던 그들과 과거 그곳에서 혁명에 참여했던 그들의 모습이 겹치며 회상 장면이 시작된다. ㉡
- 회상 장면이 끝나고 현재의 그들이 플라타너스 잎을 본다. 흔들리는 플라타너스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인 그들의 모습이 병치된다. ㉢
- 그들은 다시 길을 걷기 시작한다. 걷기 시작하면서 굳었던 표정이 펴지고 아무 일 없는 듯이 이야기를 나눈다. ㉣
- 그들은 동승동 길에서 점점 멀어져 어둠 속으로 서서히 사라진다. 이때 시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밝고 경쾌한 음악이 흐른다. ㉤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5년 E수완 A형

이럴테면 수양의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얼굴 한 번 못 마주친 ㉠애먼 뿌리와  
 잠시 살 붙였다 적막히 손을 터는 꽃과 잎이  
 혼연일체 믿어 주지 않았다면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 세 비가 아니었으면  
 밤새 정분만 쌓던 도리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담을 넘는다는 게  
 가지에게는 그리 신명 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고

㉢담 밖을 가뒤편 두는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리를 타 넘어  
 담을 열 수 있다는 걸  
 수양의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련 가지라든가 감나무 가지라든가  
 줄장미 줄기라든가 담쟁이 줄기라든가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에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 정끝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

\*도반: 서로 도와 같은 길을 가는 사람.

4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상을 의인화하여 삶에 대해 통찰하고 있다.
- ② 동일한 종결 형식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③ 감탄사를 사용해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가정 표현을 통해 화자가 주목하는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시각적 심상을 활용해 시적 대상의 움직임 표현하고 있다.

※ <보기>를 참고하여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보기>

이 시에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협력을 통해 얻어지는 성장과,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기 위한 용기이다. 이를 나타내기 위해 시인은 수양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이때 수양 가지의 성장을 돕는 건 수양 가지와 한 몸을 이루는 내적인 요소들의 협력적인 힘만은 아니다. 외적인 장애나 시련조차도 수양 가지에게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켜 궁극적으로 수양 가지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다. 수양 가지의 이런 상황은 다른 대상에게도 마찬가지이고, 이를 바탕으로 얻어지는 주제 의식을 시인은 추상적 시어에 집약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49. 윗글의 시상 전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서는 주제 의식을 형상화할 수 있는 소재로 '수양 가지'를 선택하고 있다.
- ② 2연에서는 주제를 부각할 수 있는 소재로 '담'을 주목하고 있다.
- ③ 3연에서는 '수양 가지'를 통해 생성된 의미를 다른 식물들로 확장하고 있다.
- ④ 4연에서는 '담'이 지닌 의미를 '도박이자 도반'이라는 시어로 수렴하고 있다.
- ⑤ 1연에서 4연으로 시상을 전개하면서 '수양 가지'가 지닌 의미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5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수양 가지의 성장을 도와주는 협력적 존재이다.
- ② ㉡은 수양 가지에게 외적으로 시련을 주는 존재이다.
- ③ ㉢은 수양 가지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의미한다.
- ④ ㉣은 수양 가지에게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이다.
- ⑤ ㉣은 수양 가지를 도와 함께 성장하는 역할을 한다.

정리

# 답지

1) ③ [해] (나)에서는 죽은 이와 산 자 사이의 건널 수 없는 거리가 시창작의 중심 동인(動因)이 되고 있다. 그 건널 수 없는 거리 때문에 화자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간직하고 있고, 또한 그 거리 때문에 시적 화자는 입을 묵놓아 부르고 있는 것이다. (나)에도 죽은 이와 산 자 사이의 거리가 존재하고 있다. 물론 그 거리는 죽은 이와 산 자 사이의 실제적인 거리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전하지 못하는 화자가 느끼는 심리적 거리일 수도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가)와 (나) 어디에서도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찾아 볼 수 없다. ② (가)와 (다) 어디에도 자기 성찰이나 반성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④ (가)에서는 인생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을 찾아 볼 수 없다. ⑤ 대조적인 이미지는 (나)의 '하늘과 땅' 정도에서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2) ③ [해] (다)에서 '감'은 서러움과 그리움으로 응축된 시적 화자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다. 즉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그 사랑을 전달하지 못하는 서러움이 응축되어 있는 소재가 바로 '감'이다. 3연을 보면 '감'의 붉은 빛깔이 바로 '전생의 내 전 설움이요, 전 소망인 것'을 이라는 시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감'의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3) ③ [해] ㉠은 살아 있는 내가 갈 수 없는 공간으로, 죽은 이가 존재하는 곳이다. (나)의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라는 시구에서도, '하늘'은 죽은 임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땅'은 살아 있는 내가 존재하는 현실 세계로 해석될 수 있다.

4) ① [해] (가)의 [A]에서는 유사한 시구의 반복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보기>의 바꿔 쓴 글에서도 유사한 시구의 반복이라고 할 만한 요소를 찾기 어렵다.

5) ③ [해] [B]에는 임과 나 사이의 건널 수 없는 거리가 나타나 있으며, 동시에 만날 수 없는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도 형상화되어 있다. 또한 그러한 그리움과 미련 때문에 선 채로 돌이 되는 시적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즉 [B]에는 간절한 그리움과 미련이 형상화되어 있는 것이다. ③에서도 화자는 임과의 거리를 느끼고 있다. 또한 떠나간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풀 길이 없어 오랜 세월 동안 섬이 되어 임이 떠나간 그 곳에 머물러 있는 시적 화자의 모습도 나타나 있다. 따라서 ③에서도 간절한 그리움과 미련이 형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소망과 신념이 드러나 있다. ② 눈 내리는 밤의 외로움과 서글픔이 드러나 있다. ④ 이상 세계에 대한 염원과 이상에 도달할 수 없다는 한계 인식에서 오는 슬픔이 드러나 있다. ⑤ 초화로운 삶이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소망이 드러나 있다.

6) ② [해] (가)는 눈 오는 날 떠난 '순이'에 대한 그리움을, (나)는 저승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다)는 이제는 무너져 흩어져 버린 '나무'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7) ④ [해] ㉠도 ㉡과 마찬가지로 순이를 따라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눈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화자를 안내하는 '지도'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8) ④ [해] D에서 '새로 말하면'은 앞의 내용을 반복하여 시상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화자의 심경이 변화되고 있다고 추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③ C에서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으나 '그 사람'이 내 간절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화자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 ⑤ E에서는 '그 사람'도 설움으로 살았는지 모른다는 추측을 통해 그 사람이 현재 나의 심정에 공감해 주기를 기대하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9) ⑤ [해] (나)에서는 '감나무쯤 되랴'에 설의적인 표현이 나타나고 있으나, (다)에서는 설의적인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풀이] ① (다)의 '나무가 아이의 잠자리를 찾아와 가슴을 다독여 주고 돌아가곤 했었네.'에서 의인화한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다)의 '붉은 노을이 금관악기 소리로 퍼지면'에서 시각을 청각화한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나)의 1연에서 어순의 도치를 확인할 수 있다. ④ (나)에서는 '~물라!', (다)에서는 '-었네.'가 포함된 문장의 통사 구조가 반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 ② [해] (가)의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말은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 진술이다. 하지만, 이렇게 모순 어법을 쓴 이유는 화자 자신은 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마찬가지로 (다)도 '얼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라는 모순 어법으로 화자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1) ③ [해] ㉠에는 화자의 외로움이 표현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③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후에 혼자 남아 있는 화자의 외로움이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③이 ㉠과 그 정도가 가장 유사하다.

[오답풀이] ① 화자 자신을 찾아준 것에 대한 반가움. ② 부정된 것에 대한 화자의 저항 의지. ④ 농사에서 느끼는 기쁨. ⑤ 전쟁의 비극성.

12) ① [해] ㉠은 님이 떠나간 길이다. 마찬가지로 ⑥도 화자가 소년이었을 때 죽은 어머니를 보낸 길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첫사랑을 잃은 길이다. 따라서 ㉠과 ⑥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화자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곳이다.

13) ③ [해] 붉은 파발에서 푸른 새싹은 돋는다는 것은 적절한 진술이다. 그러나 푸른 새싹이 돌아나기 위해서는 기존의 파가 소멸해야 가능하다. 따라서 붉은 파발에서 묵은 것과 새싹이 함께 공존할 수는 없다.

14) ① [해] (가)의 전반부에서 화자는 '굳고 빛나던 옛 맹사',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등 과거에 임과 함께 했던 추억을 환기하며 임과의 이별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 화자는 '신록이 우거졌을 때', '낙엽이 지던 때' 등 과거에 미처 대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을 환기하며 존재의 소멸에서 오는 상실감과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다)에서 화자는 과거에 임과 만나 사랑하던 때를 떠올리며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가)~(다)의 화자는 모두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는 자연의 변화를 표현하지 않았고, (다)는 자연의 변화가 표현되긴 했지만 그것이 화자의 미래를 암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가)~(다)에는 시적 대상을 예찬하는 작품이 없다. ④ (가), (다)에는 관조적인 자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고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는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시킨

다고 볼 수 없다.

- 15) ③ [해] (가)에서 ㉠은 슬픔이 희망으로 역전되는 부분이다. '새 희망의 경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라는 표현에는 임과 이별한 슬픔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 반면에 ㉡은 마지막 나뭇잎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화자가 문득 인식하는 순간을 묘사한 것으로서 화자의 인식만 드러날 뿐, 화자의 의지는 투영되어 있지 않다. [답] ③

[오답피하기] ① ㉠, ㉡ 모두 시상이 확산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 ㉡ 모두 화자의 감정이 은근히 드러나고 있다. ④ ㉡은 역동적인 느낌이 희박하고, 오히려 ㉠이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 ⑤ ㉠은 사실의 기술이 아니고 화자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며, ㉡은 사실과 관념이 뒤섞인 표현이다.

- 16) ② [해] (가)의 '차디찬 티끌'은 임이 떠난 충격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임과의 인연이 허무하게 깨진 것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가)의 화자가 이별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기 때문에 임이 떠났다고 해도 임과의 인연이 깨진 것은 아니다. (나)의 '새벽 서리'는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자연물이므로 허무하게 깨진 인연을 상징한다고 보기 어렵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첫 번째 '아아'는 임이 떠난 것(부정적 상황)에 대한 비탄의 심정을 담고 있으며, (나)의 두 번째 '어화'도 임이 곁에 없는 상황(부정적 상황)에 대한 비탄의 심정을 담고 있다.

- 17) ② [해] 이 시는 세상과 화합하지 못하는 존재의 고뇌를 노래한 시가 아니다. 따라서 4연에서 세상과 화합할 수 없는 존재의 고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저마다 한 개씩'이라는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강조하고자 한 것은, 생성한 것은 반드시 소멸하고 마는 자연의 원리를 깨닫게 된 화자의 상실감이라 할 수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1, 2연에서 '~가(이) 온통 ~ 때 그곳을 ~면서 나는 ~었다'는 유사한 구조의 문장을 반복함으로써 과거에는 대상의 모습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② '골짜기(1연)'-'길(2연)'-'대추나무(3연)'-'나뭇잎 하나(3연)'로 대상이 바뀌면서, 대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화자가 대상과의 거리를 점점 좁히면서 대상에 가까워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그러니까', '문득', '마침내'라는 부사는 화자의 인식의 순간을 강조하는 부사로서 독자로서 하여금 화자의 인식에 주목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⑤ 저마다 한 개씩 돌아났다(생성) 마침내 저마다 한 개씩 떨어지는(소멸) 나뭇잎의 변화 과정을 바라보면서 화자는 언젠가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있다.

- 18) ② [해] <보기>에 보면 한용운의 '반비레'라는 시에 나오는 표현이 침묵이라는 부재의 상태에서 '남'의 실재를 본 것이라는 해석이 제시되어 있고, 「나의 노래」라는 시에 나오는 표현이 화자가 자신의 노래에 '남'과 근원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여 생각해 볼 때, ㉠에서 '사랑의 노래'가 '남'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는 것은 화자가 부재 속에 실재하는 '남'을 만나 깊이 교감(소통)한다는 의미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시상의 흐름으로 볼 때, 화자는 '남'이 침묵하는 상황을 의지적으로 극복해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보기>에서 '나의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남에게 들리는' 것이 초점이므로, '산과 들을 지나서'라는 표현만 보고 자연 친화적임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에서 사랑은 이미 시작되었고, 임이 떠난 상황에서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침묵이 끝나야

사랑이 비로소 시작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에서 남의 침묵을 휩싸고 도는 '사랑의 노래'는 '남'의 노래가 아니라 화자의 노래이다.

- 19) ④ [해] [A]에서 '조각달'이나 '잘새'는 '오동', '제비', '나비'와 마찬가지로 자연물로 변해서라도 헤어진 임과 만나고 싶은 화자의 간절한 심정을 관습적으로 표현하는 소재이므로, '남'과 함께 크고 넓은 세계로 도약하려는 화자의 희망과는 거리가 멀다. [답] ④

20) ② [해] (가)의 화자는 사랑하는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인식의 전환을 통해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나)의 화자는 예술적 신념을 지키며 사는 것이 몹시 어려운 가난한 현실에서, '노신'을 떠올리며 삶의 위안을 받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화자의 부정적 상황이 작품 창작의 계기가 되고 있다.

- 21) ③ [해] ㉡은 역설법과 대구법을 사용하여 임이 화자에게 절대적 존재였음을 드러내는 부분으로, 연쇄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① '남은 갔습니다'라는 시구를 반복하고 있다. ② '황금의 꽃'과 '차디찬 티끌'이라는 대비적 의미를 지닌 시구를 사용하였다. ④ '그러나'라는 접속어 이후 이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슬픔'에서 '희망'으로 전환되었다.

22) ⑤ [해]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은 생활인과 예술인 사이에서 갈등하던 화자가 고단한 삶 속에서도 굳세게 살았던 '노신'을 떠올리며 고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으로 사회 개혁에 대한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 23) ③ [해] (가)에서는 문명에 의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비둘기를 보여줌으로써, 평화와 사랑의 삶이 중요함을 부각시키고 있다. (나)에서는 현대 물질 문명을 표상하는 자동차가 지니고 있는 편리성과 속도감에 길들여져, 이윽에 무관심해지기 쉬운 현대인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과 경각의 메시지를 시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다)는 서로 어우러져 살고 있는 버를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삶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다.

24) ① [해] ㉠의 '번지'는 새로운 물질 문명을 의미하고, ㉡의 '번지'는 이전의 인간적인 삶을 의미한다. 비둘기는 ㉠때문에, ㉡을 잃어가고 있다. (나)의 '자동차'와 '버스(지하철)'가 이런 관계에 해당한다. 사람들은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자동차(여기서는 자가용의 의미)'를 새로 장만하면서, 이런관계 살아가는 삶을 멀리하게 된다.

- 25) ① [해] ㉠은 작품이 쓰여진 당시의 시대적 배경, 또는 작가가 주목한 현실 세계가 작품에 미친 영향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다. ①은 작품이 창작된 196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에 주목하여 작품을 해석하고 있다. 오답 확인 - ②작품과 독자의 관계, ③작품의 내재적 의미, ④ 작품의 내재적 의미, ⑤작가와 작품의 관계

26) ① [해] ㉠은 '가로수, 과일 장수, 생선 장수, 애기를 업은 여인'과 같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소중한 대상은 보지 못하고 지나치면서, '교통 순경과 신호등'의 눈치만 살피며 달려간다고 노래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버려서는 안되는 '소중한 기억들'을 버리지 않는 것이므로 의미 구조가 달라졌다.

- 27) ④ [해] (다)의 마지막 연은 비록 벼는 피를 흘리며 베어지지만, 자기

희생을 통한 '넓디넓은 사랑'에 만족하며 조용히 쓰러진다는 내용이다. 누렇게 익은 벼를 수확하는 장면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이는 벼로 상징되는 민중들의,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적 삶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벼를 수확하는 장면에 해당하는 것을 고른다.

28) ⑤ [해] (가)~(다)는 모두 대립적인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가)는 '밤'과 '태양'이라는 대립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나)는 '젓더미'와 '개나리, 소녀'의 이미지 대립을 통해 전쟁의 참상 속에서 순수한 존재를 발견하고 있으며, (다)는 '차가운 비'와 '뜨거운 물, 불'의 대립을 통해 시적 화자의 한의 정서를 부각시키고 있다.

29) ⑤ [해] [A]는 <보기>에 보이지 않던 '소녀의 얼굴에 이빨이 빠진 모습'이 묘사되면서 화자와 대상의 공간적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는 느낌을 준다.

[오답 피하기] [A]는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 <보기>를 이어진 문장 하나로 표현하면서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소녀의 미소에 앞니가 빠져'는 일상적인 어법을 뛰어넘은 시적 표현이며, '죄 하나도 없다'는 '소녀가 죄가 없다'는 의미와 '소녀의 이빨이 모두 빠져 하나도 없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 중의적인 표현이 되었다. '언덕을 내려가고 있다'가 '언덕을 내리달리는'으로 바뀌면서 소녀의 모습이 좀더 생기 있게 그려지고 있다.

30) ③ [해] '유년의 캄캄한 늪에서 한 마리의 이무기는 살아남아'는 유년 시절의 삶과 현재의 삶이 단절되지 않고 한의 정서로 연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31) ⑤ [해] ㉠에는 따뜻하고 행복했던 과거를 상실하여 한탄하고 있는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이와 가장 유사한 시의 정조가 ⑤에 드러난다. '마을아, 역선 풀아, 무너진 흙담들야와 같은 표현을 통해 화자가 고향을 상실한 사람임을 알 수 있으며, '돌아가 고향 하늘에 홀로 글씨리라'라는 말로 상실감으로 인한 슬픔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③ [해] ㉡는 아이들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서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 화자의 심리를 표현한 것이다. '나도 돌아선다. /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는 표현은 그러한 심리를 뒷받침한다.

33) ② [해] (가)는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바람보다 늦게~' 등 유사한 어구를 반복하여 풀이 눕고 일어나는 시적 상황을 부각한다. (나)는 '길을 잃었네', '노켈 부르네', '눈사람이 되었네' 등 유사한 어구를 반복하여 맹인 부부 가수가 추운 겨울날에 노래를 부르는 시적 상황을 부각한다. ① (나)는 '눈', '함박눈', '겨울' 등의 시어를 통해 계절감을 드러내어 암울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가)는 계절감을 드러내어 시의 주제를 강화하고 있지 않다. ③ (가)와 (나)에 청각적 심상을 통해 대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나 의성어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④ (가), (나)는 모두 반어적표현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⑤ (나)는 '눈 내려', '함박눈은 내리는데' 등에서 하강 이미지가 드러나나 상승이미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가)도 상승과 하강 이미지를 교차하고 있지 않다.

34) ⑥ [해] <보기>에서는 다양한 부사어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에 대처하는 풀의 움직임 형상화하고 있다. 3연에서 '늦게', '먼저'는 풀이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웃는다'는 것을 드러

내어 풀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나 풀의 내적 성숙을 지연시키고 있음을 부각하고 있지 않다. ① '드디어'는 '울었다'를 수식하여 바람에 나부껴 누운 풀이 울지 않고 있다가 결국에는 울게 되었음을 나타내어 억압적인 상황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음을 나타낸다. ② '더'는 '울다가'를 '다시'는 '누웠다'를 수식하여 날이 흐려 더 울고 다시 누웠다는 상황을 드러내어 풀에 가해진 시련이 만만치 않음을 나타낸다. ③ '빨리'는 '눕는다', '울고'를 수식하여 풀이 바람 때문이 아닌 자기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④ '밭목까지', '밭밑까지'는 풀이 그만큼 많이 누웠다는 것을 나타내어 풀에 대한 억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35) ⑤ [해] 눈사람은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민중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봄이 와도 녹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이와 같은 희망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눈사람'은 민중이 바라는 희망을 함축하는 시어인데 이러한 눈사람이 없는 겨울밤이라고 하여, 이는 앞날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부정적인 현실 상황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시인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 사랑과 화해로 이루어질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민중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는 '사랑하기 위하여', '용서하기 위하여'라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눈'은 민중에게 가해진 시련과 고통을 상징하고, '어둠'은 부정적인 현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눈을 맞으며 어둠 속을 떨며 간다는 것은, 민중들이 고통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④ '아름다움'과 '즐거움'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의 미래를 지향하는 것으로, 이 표현에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36) ② [해] (가)는 쪼들리더라도 세속적인 이익을 좇으며 살지는 않겠다는 화자의 태도를 (나)는 올바른 관점을 지니고 세상을 바라보려는 화자의 태도를 (다)는 공명을 취하기보다는 자연에 묻혀 살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세 작품은 모두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37) ⑤ [해] <보기>의 자료들은 모두 작품과 관련된 것으로, 작품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준다. 왜냐하면 작품에서 모호하게 제시되거나 상징적으로 제시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와 관련된 자료3에서는 작품 이해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을 뿐 선인의 글을 읽는 방법과 태도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38) ③ [해] (나)의 화자는 산꼭대기에서 세상을 바라보다가 세상 속으로 들어와 서민들 틈에서 다양한 모습을 접하게 된다. 이때 '지린내 땀내도 맡고 약다구니도 듣고'는 자신의 삶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화자가 접하게 된 현실의 모습으로, 원통 뒷골목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집약한 말이다. 그러므로 이는 서민들의 거칠면서도 소박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9) ① [해] <보기>에 제시된 시인의 삶과 관련하여 시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본다. '미달이에 가꿈 그늘이 진다'라는 표현은 쓸쓸한 정취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그에 비해 '이순이 넘었다'라는 표현은 오랜 세월동안 시 창작을 해왔다는 내용으로, 시인으로서의 일관된 삶에 대한 자부심이 깔려 있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를 연결하여 시인의 애상적 정서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0) ③ [해] (다)는 독서에 대한 화자의 느낌을 담아내고 있다. 화자는 과

거 자신이 품었던 생각을 떠올리며 현재의 삶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현재의 삶이 과거의 삶보다 화자가 생각하는 발마직한 삶의 모습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화자는 넓고 순수하 자연 속에서 달다보니 학문을 의심없이 깨우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 41) ⑤ [해] (가)의 '이다지도 욱될까' (나)의 '누가 새겨 놓았을까' 등 의 문형 표현을 통해 화자의 문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42) ⑤ [해] 화자가 '거울 속'에서 보게 되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은 '밤이면 밤마다',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거울'을 닦은 후에 나타난 것이므로, '어느 왕조의 유물'과는 다른 성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43) ⑤ [해] '슬픈 향기' '비에의 꽃송이'등에서 화자의 감정이 드러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감정의 절제'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성애꽃의 생동감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 44) ⑤ [해] <보기>에서 '소멸을 앞둔 찰나적 속성을 지닌 존재에 대해 아름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한 방울 물로 스러지는데' 곧 소멸을 앞둔 상황을 나타내므로 이러한 속성에서 성애꽃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 45) ③ [해] '4.19가 나던해'를 통해 구체적 시간이, '해화동 로터리, 동송동 길'등의 구체적 공간을 통해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 46) ③ [해] 남들이 '홍해 낼 수 없는'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과거에는 자기만의 분명한 생각을 지니며 살았고 이를 당당히 드러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재 '떠도는' 이야기나 '주고받'는 천지가 되었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상황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런 변화는 관심사가 개인 문제에서 사회 문제로 변화했다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그렇게 못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 47) ⑤ [해] 동송동 길에서 부끄러움을 느꼈던 인물들이 '늬' 같은 삶, 즉 소시민적 삶으로 회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장면의 배경으로는 밝고 경쾌한 분위기보다는 무겁고 쓸쓸한 분위기의 배경 음악이 어울릴 것이다.
- 48) ③ [해] 이 글에는 감탄사의 사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 49) ⑤ [해] 이 글에서 '수양 가지'는 협력의 대상인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 성장하는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다. 하지만 시상이 전개되면서 그 의미는 성장의 주체로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고 의미 변화는 나타나 있지 않다.
- 50) ⑤ [해] 수양 가지의 성장은 곧 담을 넘는 것으로 형상화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뿌리'와 '꽃과 잎'이 '혼연일체' 믿어 주고 '비'와 '폭설'로 인해 신명이 났으며, '담'으로 인해 '꿈'을 꾸고 마침내 그것을 넘게 되었다. 그러므로 수양 가지의 성장을 도운 대상은 앞서 열거한 '뿌리', '꽃과 잎', '비', '폭설', '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목련 가지'는 수양 가지와 같은 과정을 겪는 유사한 대상이지 수양 가지의 성장을 돕는 대상은 아니다.